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2월
교육학석사(기술·가정교육전공)학위논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전공

송 수 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Effect of college students' job stress on family
health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2023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 · 가정교육전공

송 수 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 미치는 영향

-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기술·가정교육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교수 박 종 철

2022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 · 가정교육전공

송 수 호

송수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성호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주경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종철 인

2022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국문초록	vii
ABSTRACT	ix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취업스트레스	5
1. 스트레스 개념	5
2.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개념	6
제2절 가족 건강성	10
1. 가족 건강성의 개념	10
2. 가족 건강성의 구성요소	12
제3절 우울감	14
1. 우울감의 개념	14
2. 우울감의 구성요소	16
제4절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	19
1.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	19
2.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감	21
3. 가족 건강성과 우울감	22

제3장 연구방법	23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23
1. 연구모형	23
2. 연구문제	24
제2절 연구대상	25
1. 연구대상	25
제3절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27
1. 연구도구	27
가. 취업 스트레스 척도	27
나. 가족 건강성 척도	28
다. 우울감 척도	29
2. 분석방법	30
제4장 연구결과	31
제1절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	31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33
2.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의 차이	35
3.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차이	36
제2절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의 전반적인 경향	37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가족원 유대의 차이 ...	39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의사소통의 차이	40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차이 ...	41
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가치체계 공유의 차이 ..	42
5.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과 우울감의 차이	43
가.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과 우울감(정서적)	43

나.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과 우울감(인지적)	44
다.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과 우울감(동기적)	45
라.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과 우울감(생리적)	46
제3절 대학생의 우울감의 전반적인 경향	48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정서적 우울감	49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인지적 우울감	51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동기적 우울감	52
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생리적 우울감	53
제4절 상관관계 분석	54
제5절 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	56
제5장 결론	59
참고문헌	62
부록(설문지)	70

표 목 차

<표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6
<표2> 취업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7
<표3> 가족 건강성의 하위차원과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도	28
<표4> 우울감의 하위차원과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도	29
<표5>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	31
<표6> 취업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차이	34
<표7>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 ...	35
<표8> 취업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36
<표9> 가족 건강성 및 하위차원의 전반적 경향	38
<표10>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가족원 유대의 차이	40
<표11>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대학생의 의사소통의 차이	41
<표12>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대학생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차이	42
<표13>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대학생의 가치체계 공유의 차이	43
<표14> 정서적 우울감 수준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차이	44
<표15> 인지적 우울감 수준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차이	45
<표16> 동기적 우울감 수준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차이	46
<표17> 생리적 우울감 수준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차이	47
<표18> 우울감 및 하위차원의 전반적 경향	49
<표19>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정서적 우울감의 차이	50
<표20>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인지적 우울감의 차이	51
<표21>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동기적 우울감의 차이	52
<표22>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생리적 우울감의 차이	53
<표23> 상관관계 분석	55

<표24> 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모형) 57
<표25> 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분산분석) 57
<표26> 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회귀식분석) 57
<표27>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 우울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 58

그림목차

<그림 1> 연구모형	23
<그림 2>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 우울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sobel test)	58

국문초록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송수호

지도교수: 박종철

기술·가정교육전공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고용시장 침체와 오랫동안 지속해온 가족 건강성 변화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상호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고용불안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의 관계에서 우울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 및 4년제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ANOVA, t-검정,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 분석한 결과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가족 건강성의 하위차원인 가족원 유대($F=6.199, p<0.1$), 의사소통($F=7.170, p<0.1$), 문제해결 수행능력($F=8.189, p<0.001$), 가치체계공유($F=7.752, p<0.001$)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원 유대와 의사소통이 높았다. 또한, 문제해결 수행능력과 가치체계 공유는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둘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수준은 우울감의 하위차원인 정서적($F=22.389, p<.001$), 인지적($F=26.618, p<.001$), 동기적($F=26.163, p<.001$), 생리적($F=11.582, p<.001$)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우울감은 높게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우울감 수준은 가족 건강성의 하위차원인 가족원 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치체계공유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 우울 정서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원 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치체계공유가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 인지의 수준 또한 낮을수록 가족원 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치체계공유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우울감의 영향은 경제 수준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학년, 휴학 여부, 전공, 성적, 취업준비 정도 등의 여타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정서적($r=.463, p<.001$), 인지적($r=.475, p<.001$), 동기적($r=.473, p<.001$), 생리적($r=.353, p<.001$) 우울감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고, 가족원유대($r=-.305, p<.001$), 의사소통($r=-.324, p<.001$), 문제해결 수행능력($r=-.327, p<.001$), 가치체계공유($r=-.325, p<.001$) 등의 가족 건강성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취업 스트레스($\beta=-.202, p<.01$)와 우울감($\beta=-.274, p<.001$)은 가족 건강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여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의 관계에서 보다 다양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고려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Effect of college students' job stress on family health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Song Su-Ho

Advisor : Prof. Park Jong-Chul, Ph.D.

Major in Phys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cent job market stagnation and the long-lasting changes in family health and the social phenomenon. In particular,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job stress caused by job insecurity on family health was investigated. In addition, we investigated whether depress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family health of college students.

To this end,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for college students and 4-year undergraduates, and the results of research analysis through ANOVA,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job stress level of college students, family member bonding ($F=6.199$, $p<0.1$), communication ($F=7.170$, $p<0.1$), problem-solving performance ($F=8.189$, $p<0.001$) and shared value system ($F=7.752$, $p<0.001$) showed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particular, the lower the job stress level, the higher the family ties and communication. In addition, problem-solving performance ability and value system sharing were higher as the job stress level was lower.

Second, the job stress levels of college students were emotional ($F=22.389$, $p<.001$), cognitive ($F=26.618$, $p<.001$), and motivational ($F=26.163$, $p<.001$) sub-dimensions of depression. , showed a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physiological ($F=11.582$, $p<.001$). In particular, the higher the job stress level, the higher the emotional, motivational, and physiological depression.

Third, the emotional, cognitive, motivational, and physiological levels of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showed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family member bonding,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performance, and value system sharing, which are sub-dimensions of family health.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ower the depressive emotional level, the higher the family member bonding,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performance ability, and value system sharing. System sharing was high.

Fourth, only economic level variable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emotional, cognitive, and motivational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n particular, the lower the economic level, the higher the depression. However, other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grade level, absence from school, major, grades, and job readines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ifth, the job stress of college students was emotional ($r=.463$, $p<.001$), cognitive ($r=.475$, $p<.001$), motivational ($r=.473$, $p<.001$), and physiological ($r=.353$, $p<.001$)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family ties ($r=-.305$, $p<.001$), communication ($r=-.324$, $p<.001$), problem-solving performance ($r=-.327$, $p<.001$), value system sharing ($r=-.325$, $p<.001$), etc. appear.

Sixth,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partially mediates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job stress on family health. At this time, it was found that job stress ($\beta=-.202$, $p<.01$) and depression ($\beta=-.274$, $p<.001$)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family health.

In this study,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t was shown that employment stress also affected family health.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a study that considers more divers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family health.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010년대 이후, 국내경제는 선진국들의 생산 둔화 및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경제 성장세 둔화, 금리상승, 청년 인구(15~29세)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¹⁾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기 침체 양상을 보였다.²⁾ 게다가, 최근에는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국가 간 봉쇄정책으로 내수 중심 실물경제와 수출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불확실한 대외 악재는 정부 및 기업의 채용계획 인원 축소와 부족인원 감소 문제를 야기시켰으며,³⁾ 특히 청년(15~29세) 고용시장의 둔화 및 정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용노동부(2019)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청년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청년 취업률(43.5%)은 중년(30~49세) 취업률(77.3%)과 장년(50~64세) 취업률(70.8%) 대비 현저히 낮았다. 또한, 청년 실업률(8.9%)은 장년 실업률(2.8%)과 중년 실업률(2.7%)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게다가, 이러한 고용시장의 불안정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어, 2020년 청년 취업률은 42.2%로 2019년 대비 1.3% 하락하였고, 2020년 청년 실업률은 10.2%로 2019년 대비 1.1% 증가되었다(통계청, 2020).⁴⁾

1)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인구는 1980년 24,637명을 정점으로 2019년 16,100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생산가능인구는 1960년 1,370만명에서 2016년 3,763만명까지 증가하였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2020년에 3,738만명까지 감소하였으며, 향후 2030년에는 3,381만명 수준까지 감소를 예상하였다.

2) LG 경제연구원, 2019 국내외 경제전망(2018.9), 2020년 국내외 경제전망 (2020.8), 2021년 국내외 경제전망(2021.4).

3) 고용노동부(2019)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대상)에 따르면, 채용계획인원은 2016년 304,000명을 기점으로 2019년 256,000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부족 인원은 2016년 283,000명을 기점으로 2019년 241,000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청년 실업률 증가는 대학생들에게 취업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심리 사회적 적응, 행복감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알바몬(albamon, 2020년)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행복 지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주요 요인으로는 취업준비(61.0%)가 가장 높았고⁵⁾, 향후 진로(44.5%), 학과 공부(43.4%), 생활비 증당(29.6%), 코로나 19상황(21.3%), 연애(13.4%), 학비마련(13.1%), 가족관계(12%), 건강문제(8.7%), 친구관계(7.4%) 순으로 조사되었다.⁶⁾ 또한, 알바몬(albamon, 2019년)·잡코리아에 따르면,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로는 우울감(37.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편두통(33.2%), 만성피로(25.5%), 소화불량 및 속쓰림(23.2%), 대인기피증(12.1%), 경과민(11.7%), 불면증(11.6%) 순으로 나타났다.⁷⁾

이에, 최근에 대학생들의 고용불안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자살,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인 요인 간의 직·간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조혜정(2013)과 류영미(2020)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임효정(2017)과 이형순(2018)은 취업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홍예진(2015)과 허보미(2017), 그리고 황명주(2019)은 취업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취업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정신건강, 자살 행동에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미침을 보였고, 취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짐을 보였다. 또한, 천만봉(2013)과 최승혜(2013), 그리

4)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2020)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전체 취업률은 2016년 64.9%, 2017년 64.6%, 2018년 62.8%, 2019년 64.4%, 2020년 63.4%로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5) 취업 스트레스의 이유로는 언제 취업될 줄 모르는 불안감(38.6%), 오랜 시간 취업준비로 인한 지침(20.5%), 경제적인 어려움(11.7%),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함(9.7%), 계속되는 서류, 면접 전형에서의 탈락(7.0%),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펙(5.7%), 부모나 친척 등 지인들의 기대감(3.3%), 먼저 취업한 친구와의 비교(1.8%) 순서로 조사되었다.

6) <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172>.

7) https://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6031

고 조지현(2020)은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하였다. 또한, 최애라(2016), 주현정(2017), 배은숙(2018), 그리고 권연숙(2019)은 가족건강성, 가족기능, 가족의 취업지원 등 가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들 결과에 의하면, 가족의 지원이 높아질수록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족기능 및 가족 구성원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과 달리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나아가 이들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이 우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의 관계에 있어,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 우울감의 차이를 살펴본다.

둘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가족 건강성, 우울감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셋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넷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다섯째, 대학생의 우울감이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여섯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취업스트레스

본 절에서는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스트레스의 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트레스 개념

스트레스(stress)는 1936년 한스 휴고 브루노 셀리(Hans Hugo Bruno Selye)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의학용어로 Strictus(딱 죄는), Stringere(단단히 죄다)에서 유래되었으며,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내적인 자극이나 외적인 자극과 그로 인한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스트레스의 사전적 의미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신체적·생리적인 긴장 상태나 혹은 불쾌한 사건·사고에 대한 인간의 행동적, 정서적 반응을 나타낸다(서창원, 민윤기, 2014). 나아가, 이러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신체적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의 부적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스트레스는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스트레스와 성장 과정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 수십 년간 국·내외적으로 스트레스와 관련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외 연구의 경우, Selye(1936)의 생물학적 관점에서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Holmes & Rahe(1967)의 사회적 관점에서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생물학적·사회적 관점을 모두 포괄하는 Lazarus & Folkman(1984)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가 대표적이다(현성용 등, 2011). 특히, Lazarus(1984)는 스트레스에 대해 스트레스를

유발한 사건 자체보다는 해당 사건에 관한 개인의 인지 및 해석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으며, 이는 동물과 달리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인지 기능과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윤가현 등, 2013). 또한, Lazarus(1984)는 스트레스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하에서의 무리한 요구와 더불어 자신의 안녕(well-being)이 위협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야기될 수 있다고 하였다(손슬기, 2014; 백서연, 2016).

국내 연구의 경우, 김진희(2012)는 스트레스는 혐오적인 정서로써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장효임(2014)은 스트레스를 개인의 정서와 생리 간의 평형상태가 무너지거나 변화되는 것에 대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였다. 한편, 손슬기(2014)는 스트레스를 활력을 제공 및 유지하는 긍정적 스트레스인 유스트레스(eustress)와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부정적 스트레스인 디스트레스(distress) 등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2.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개념

개인의 진로발달 및 진로를 위한 노력은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는데, 대학생 시기는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등의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로, 성공적인 이행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다양한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Super, 1990). 이때, 취업 스트레스는 이행 과정에서 취업 준비 및 실패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일컫는다(홍예진, 2015).

일반적으로, 대학생 시기의 주요 관심은 직업의 종류와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진로에 대한 새로운 목표 설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수행하고, 자신의 인생 목표와 적성을 고려하여 구직한다(Erikson, 1968). Ginzberg(1951)에 따르면, 직업발달은 순차적으로 환상적 시기 과정, 시험적 시기 과정, 현실적 시기 과정

등 총 세 단계의 시기 과정을 통해 이뤄지고, 특히 마지막 단계인 현실적 시기 과정에서의 대학생의 직업에 관한 관심은 흥미와 매력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처럼, 대학생 시기는 직업기회, 사회적 상황, 경제적 상황 등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 및 결정하는 시기이다.

취업 스트레스는 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었다. 보편적으로 취업 스트레스는 Lazarus(1984)의 자극기반 스트레스 모델(stimulus-based stress model), 반응기반 스트레스 모델(response-based stress model), 역동적 상호작용 기반 스트레스 모델(transactional-based stress model) 등 세 가지 스트레스 모델에 기반하여 정의 및 해석될 수 있다(강경훈, 2009). 첫째, 자극기반 스트레스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극되고 유발되는 개인의 내적 갈등 및 긴장 등의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즉, 스트레스는 실패 및 실패에 대한 위협이나 걱정, 주변 환경에서 야기되는 불쾌·불편한 대상, 죽음의 경험, 사회적 변화, 고립감 등으로 인해 자극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극기반 스트레스 모델 관점에서는, 취업 실패, 미취업, 실업 등의 상황을 취업 스트레스로 볼 수 있다(서정희, 2012). 둘째, 반응기반 스트레스는 사회 및 조직 내에서 개인의 적응력이 환경적 요구나 내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반응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이처럼, 반응기반 스트레스 모델 관점에서, 취업 스트레스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내외적 요구로 인해 야기되는 개인의 불균형적인 신체적 및 심리적 상태와 더불어 자원 재정비 등의 균형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반응을 포함할 수 있다(이미숙, 2011). 셋째, 역동적 상호작용 기반의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의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지각 및 평가, 환경적인 주변 사건 등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 해당 상황을 스트레스 사건으로 간주하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스트레스의 반응이 개인의 내적 상태나 자원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스트레스를 판단할 때는 반응과 자극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역동적 상호작용 기반의 스트레스 모델 관점에서, 취업 스트레스는 졸업 이후 구직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대학 생활에서의 불안정한 신체적·정신적인 긴장 상태 등의 스트레스를 포함한다(김정아, 2014).

또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많은 대학생은 대인관계, 취업 및 학업 진로, 정체성 등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특히 취업 및 진로와 관련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강슬아, 2015). 김현아(2006)와 김명옥(2011)은 반복적인 취업 실패와 장기간의 미취업 상태로 인해 야기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취업 스트레스로 정의하였고, 황성원(1998)은 졸업 이후 구직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인해 대학 생활 과정에서 심리와 신체 간의 평형상태가 무너지고, 불안감, 긴장감 및 위기감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미숙(2011)은 개인의 능력이 취업과 관련한 내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로 인한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인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강유리(2006)는 취업 스트레스를 성격 스트레스, 가족 환경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취업불안 스트레스 등 다섯 개의 구성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성격 스트레스는 취업에 대한 자신의 성격적인 문제와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가족 환경 스트레스는 가족 부양을 위한 경제적인 책임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는 취업을 위한 학점 및 실력 부족으로 인해, 학교환경 스트레스는 지도교수의 관심 부족과 자신의 학교 수준 미달로 인해, 취업불안 스트레스는 취업에 대한 개인의 불안한 심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다.

다음은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해 수행된 다양한 선행연구에 관한 고찰이다. Swanson & Daniels(1996), 전찬열(2013)과 이미라(2014)는 대학생은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 전공 불만족, 직업정보 부족, 노동시장의 제약 등으로 인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혜정(2004)과 조혜정(2013)은 취업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수면장애, 두통 등의 다양한 부정적 영향

을 미치고, 나아가 신체적, 정신적, 지적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우울증, 자살 충동과 같은 정신질환의 요인들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아울러, 서인균과 이연실(2015), 현승권(2016), 황명주와 장용언(2017), 그리고 윤초롱과 이자명(2018)은 연구를 통해 대학생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신체적 반응으로 수면장애 및 두통과 섭식 문제 등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자살 생각, 대인관계 위축, 절망감, 우울감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이유미(2019)는 연구를 통해 취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은 대학생이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및 대처가 미흡함을 보였다. 같은 맥락으로, 유계숙과 신동우(2013)는 대학생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대처, 자기 위로를 위한 대처, 문제 해결중심의 대처는 사용하지만, 회피 중심의 대처, 정서 중심의 대처는 비교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미정과 임차영(2019)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를 대처할 때,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와 대처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이에 문제 해결 중심의 대처 사용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대다수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및 대처방안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다영, 2019; 백은주, 조규판,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급변화는 국내외 경제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환경의 변화, 이로 인한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심리적·신체적 반응을 취업 스트레스로 정의하고자 한다.

제2절 가족 건강성

본 절에서는 가족 건강성의 개념과 가족 건강성의 척도를 위한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 건강성의 개념

가족은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신념과 가치를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며, 나아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신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오은지, 2016). 또한, 가족은 상호 간에 작용하는 인격체들로 구성된 유기체로서,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 교환을 통해 공통 문화를 창조 및 유지하는 집단이다(Burgess, 1950; 안지현, 2020).

국외 연구에서 가족 건강성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Otto(1962)는 가족 건강성은 가족원의 건강한 심리적·신체적 상태뿐만 아니라 생활하는데 희망적이고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라 하였으며, 이때, 가족은 단순한 개개인의 집합체를 넘은 하나의 통일체와 같은 단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가족 공동의 목표와 관심사 있으며, 가족원 간의 도덕적 가치, 종교, 신념을 공유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더불어,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대화 및 합의가 이뤄지고 특별한 여가 및 휴식 활동을 함께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Hill(1972)은 가족 건강성을 외부 체계의 요구와 내부 가족원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도와주는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Stinnett(1979)는 가족 건강성에 대해 가족 정체감을 긍정적으로 형성 및 발달시키는 상호관계의 패턴이자 특성, 역량, 기술로 정의하였다. 즉, 모든 가족은 각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원이 높은 안녕감을 느낀다면 건강한 가족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Olson

& DeFrain(2003)는 가족 건강성을 가정의 구조나 형태적인 측면보다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건강 가족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은주와 유영주(1995)는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정서적이고 공동체적이며, 도덕적인 관계 향상을 추구하는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유계숙(2004)은 가족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 관점에서 건강한 가족을 정의하였으며, 가족원들이 위기나 변화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경우, 가족의 건강성이 높을수록 이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기철(2006)은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 간의 상호 신뢰가 높고 다양한 애정 교류가 이뤄지며, 친밀한 상호작용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원 간의 공동체적 관계 향상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도덕적, 정서적 상태를 유지하는 가족이라 하였으며, 위종희(2012)는 가족이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기 극복뿐 아니라 가족원 간의 상호관계 및 가족 정체감을 형성 및 증진하고 각종 스트레스에 대해 가족원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 정의하였다. 아울러, 원상숙(2014)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가족원 간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고 가족원 개개인이 화목한 가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가족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로부터 건강한 가족원이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애정, 신뢰, 유대감 등의 정서적 유대와 가치관을 상호 공유하며,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가족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건강성은 가족원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 및 발달하고, 나아가 가족의 위기에 잘 극복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가족 건강성의 구성요소

국내외적으로 가족 건강성의 특성 분석에 필요한 구성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외 연구의 경우, Otto(1962)는 가족 외부 활동 참가, 원활한 의사소통, 정신적인 안녕, 문제해결기술, 가족원의 성장과 격려, 부모와 훈육, 양육, 지지를 가족 구성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또한, Walsh(1982)는 가족 구성요인을 헌신, 관계 의식, 심리 사회적 지원, 경제적 지원, 신념체계, 부모 역할, 부부관계, 문제 및 갈등 해결, 의사소통, 적응성, 안정성, 자율성 등으로 제시하였고, Skinner(1982)는 지지와 격려, 능동성, 유연성, 의사소통, 부모 역할, 상호작용, 자율성, 신뢰 등으로 구성하였다. Olson & DeFrain(1994)는 가족 건강성의 특성을 의사소통, 적응성, 응집성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의사소통은 가족원의 느낌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것, 적응성은 변화에 대한 가족의 개방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변화의 정도, 응집성은 가족원들이 느끼는 유대감과 감정적인 친밀감을 의미한다. DeFrain & Stinnet(2000)는 가족 구성요인을 위기관리 능력, 스트레스 대처, 영적인 안녕, 공유 시간,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 서로에 대한 애정과 감사, 헌신 등을 주요하게 제시하였으며, 건강한 가족은 만들어지는 것이라 강조하였다. 아울러, Olson & DeFrain(2003)는 스트레스 대처능력, 시간의 질적 공유, 감사와 애정, 헌신하기, 정신적 안녕, 긍정적인 의사소통 등의 6가지 구성요인을 제시하였다(김미정, 2017).

국내에서도 건강한 가족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어은주와 유영주(1995)는 가족 건강성 특성 분석을 위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가족원 간의 유대, 대화기술, 문제해결 능력,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 등 4가지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때, 가족원 간의 유대는 가족원 간의 신뢰, 이해, 사랑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충분한 상호 간의 배려를 통해 이뤄진다. 이때, 가족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요인으로는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기,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주기, 가족원과 함께 시간 보내기 등을 제시하였다(이현미, 2013). 가족의 문제해결 능력은 가

족이 직면하고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 및 문제 상황에서 유연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해결 및 극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이경은, 2003). 가족의 건강성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가족처럼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위기나 스트레스의 대체 능력이 높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요소에 중점을 뒀서 위기를 다루면서 단합할 수 있다(Stinnett, DeFrain, 1986). 가족원 간의 대화기술은 언어 또는 비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족원 간에 상호작용을 하며, 자유로운 소통과 직접적인 소통이 명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강미연, 2020). 즉, 건강한 가족일수록 많은 시간을 의사소통하는데 투자하며,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 시에는 숨기지 않고 갈등을 표출하여 모든 가족원이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한다(한영숙, 2006). 마지막으로,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는 가족원이 서로 이해하고 믿으며 공감하는 것을 말하며,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공유된 가치관과 신념을 포함한다(이경은, 2003). 따라서, 건강한 가족은 가족의 일원임에 긍지를 갖고, 가족사와 가족 전통에 자부심을 가지며,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Stinnett, 1986).

유계숙(2004)은 가족의 적응, 응집, 결속력을 강조하며, 가족원에 대한 존중, 문제해결 능력, 사회와의 유대,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원의 신체적 건강, 가치관과 목표공유, 가치관, 역할 충실, 긍정적인 의사소통, 감사와 애정 및 정서, 유대 의식 등 10가지 구성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유영주(2004)는 유계숙(2004)의 10가지 구성요인에서 가족원의 신체적 건강을 제외한 9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해경(2008)은 국내에서 사용된 기존 가족 건강성에 대한 측정 도구가 가족체계 이론을 기반하지 않다는 점, 성인 대상의 문항을 청소년에게 적용한 점, 실증적 연구를 통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된 다양한 구성요인 중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제시한 가족원 간의 유대, 대화기술, 문제해결 능력,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 등 4가지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가족 건강성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제3절 우울감

1. 우울감의 개념

우울(憂鬱, Melancholia) 또는 우울감은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다는 한자 의미를 가지며, 기분이 언짢은 느낌이나 공상과 반성을 동반하는 가벼운 슬픈 감정을 말한다.⁸⁾ 우울감에 관한 정의는 국내외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었다.

국외 연구에 따르면, 우울은 태도, 기억, 판단, 지각, 인지, 사고 등에서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음의 상태(Beck, 1967), 나아가, 상실감, 실패감, 침울,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근심, 부정적인 인식, 무기력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서적 상태(Beck, 1974)라고 할 수 있다. 특히, Beck(1967)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달리 우울한 사람들에게 관찰되는 일반적인 인지 형태 및 유형으로 미래에 특이한 반응,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와 기대를 하고, 경험에 대한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인지를 왜곡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울한 사람들은 긍정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 및 환경에서도 주어진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지각 및 바라보며, 자기 자신은 항상 패배자이자 피해자로 해석한다. 나아가, 자기 자신은 항상 상대방의 비난 대상이며, 자신에게만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Angst & Stassen(1999)은 우울감은 고통스러운 삶의 조성, 직업적 부적응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심할 때는 자살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김성일과 정용철(2001)은 우울은 울적한 기분이나 슬픔 같

8) <https://ko.wikipedia.org/wiki/우울>.

은 단순 감정 상태에서 무력감이나 상실감 등의 정서 장애까지 광범위한 인간의 심리 상태라 정의하였다. 아울러, 박정희와 유영주(1999)는 우울은 상실감이나 슬픔 등의 정서적 기능, 의욕 상실, 무력감 등의 동기적 측면, 체중감소, 피로감, 불면증, 식욕부진 등의 생리적 기능과 같이 인간의 모든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 하였다. 게다가, 김교현(2006)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되는 불행하고 슬픈 기분, 즐거움과 흥미 상실, 불만족스러운 수면이나 식욕의 변화 등의 증상을 우울증이라 하였다.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우울증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를 제시한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를 발행하였다. DSM-5에 따르면,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계속되는 우울감, 과다수면이나 불면 등의 불규칙한 수면, 부적절한 자책감 또는 무가치감, 급격한 체중증가나 체중감소, 활력 상실이나 피로감, 집중력 및 사고력 감소, 반복되는 자살 생각 및 자살 계획, 정신운동 지체나 초조함 등이 우울장애의 주요증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우울장애 중 5개의 증상이 2주 이상 매일 연속해서 보이고 우울감, 즐거움, 흥미가 현저히 떨어지고 1개 이상 포함될 경우 우울장애로 진단된다(APA, 2015). 권석만(2013)은 이러한 우울장애는 약 20~25%의 사람들이 평생에 1번 이상 경험할 수 있는 장애로, 심리적인 독감이라 하였다. 한편, 엄나연(2015)은 우울장애는 우울증의 정도에 따라 자살 등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까지 이르게 하는 정신질환이라 하였다. 게다가, 외로움, 공허함, 슬픈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미래에 대한 절망감 등의 정서적 인지적 장애를 동반한다고 하였다 Beck(1967).

다음은 대학생의 우울 및 우울감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이다. 대학생들의 우울감은 다른 시기의 청소년보다 정신병적 장애로 쉽게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Beck and Young, 1978). 이는, 자아 형성 및 자아 정체감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

학생 시기에 우울로 인한 인지 및 정서적 변화와 생리·신체적 변화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심할 경우 자살 생각 등의 질환을 발생시킨다(Erikson, 1976). Beck(1983)은 대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하였거나 겪고 있는 우울감을 일종의 상실이나 실패로 왜곡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박은영(1998)은 우리나라 대다수의 대학생 경우, 치열한 고등학교 입시 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 선택 및 결정에 있어 자신의 가치관과 적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따라서 졸업 시기 자신의 진로 문제에 현실적으로 직면할 때 많은 불안과 격심한 갈등으로 인한 우울감 경험이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대전환 과정에 있는 대학생은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학업과 졸업 후 진로 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2020년에 발병한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 간 전쟁으로 인한 세계 시장에서의 원자재, 부품 등의 공급망 훼손, 미국, 유럽 등의 주요국가에서의 물가지수 상승,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고금리 등은 경제 및 금융시장과 고용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대학생들의 우울 증상은 과거와 비교해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서 우울증의 매개효과를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우울감의 구성요소

Beck(1967)은 관찰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울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인지적 왜곡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모습, 현재 및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짐을 지적하였으며(박은조, 2001),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우울증 평가를 위해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를 개발하였다. Beck(1967)의 BDI 검사는 우울의 유무와 우울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울증이 없는 환자와 우울 환자에 중점을 두고 우울증 하위요인을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증상으로 구분하였다. 우울한 사람의 신체적 증상은 두통, 체중감소, 식욕 저하, 불면증 등을 나타내며, 인지적 증상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대한 왜곡 및 부정적인 평가, 미래에 대한 절망감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무력함을 나타낸다. 한편, 우울한 사람의 정서적 증상은 지속적인 외로움과 슬픈 감정, 기쁨과 흥미의 상실과 공허감을 나타낸다.

Blatt, D'Afflitti & Quinlan(1976)은 우울에 관한 주관적인 경험과 이와 관련된 우울 경험 질문지를 의존적 우울과 자기 비판적 우울 등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자기 비판적 우울은 실패의식, 죄책감, 열등감, 자기 비난 등의 성향을 측정하며, 의존적 우울은 유기에 대한 두려움, 나약함, 외로움 등의 성향을 측정한다(Blatt, Shahar, Zuroff, 2001). 또한, 일반인들의 우울 수준 측정을 위해 개발된 우울 척도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이하 CES-D)는 경험하는 우울증의 증상을 정서적인 측면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다(Radloff, 1977; 미국 정신 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판 CES-D 척도는 종합적으로 행동 둔화와 신체활동 저하에 관한 문항, 우울의 감정적인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 긍정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문항, 대인관계로부터 느끼는 고립감에 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Kovacs(1981)는 우울의 개념을 정의하고 평가를 위해 아동용 우울 성향 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이하 CDI)를 개발하였다. 해당 우울척도는 자신이 우울 정도를 평가 및 보고하는 자기 우울 평정 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이다. 우울척도의 주요 하위요인으로는 첫째, 지속적인 외로움, 슬픈 감정, 흥미와 기쁨 상실, 공허함 등의 정서적 증상, 둘째, 의욕 저하, 피로감, 체중감소, 식욕감퇴 등의 생리적 증상, 셋째, 미래에 대한 절망감, 일상생활에서의 열등감과 무기력감, 넷째, 자기비하 및 자기 비난, 무가치감과 죄의식, 주의력 및 사고력 저

하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전귀연(1994)은 아동 우울척도 개발을 위해 Kovacs(1981)의 우울척도를 보완하여 20가지 문항으로 제작하였으며, 우울한 기분을 나타내는 외로움, 부정적인 자아상을 나타내는 무가치감,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 상실을 나타내는 무력감 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Beck & Alford(2014)는 우울을 증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 슬픔, 무관심, 외로움 등으로 뚜렷한 기분 변화, 둘째, 자기 자책과 자기 비난과 관련된 부정적인 자기개념, 셋째, 숨거나 도피하고 죽기를 바라는 퇴행과 자기 처벌적 소원, 넷째, 불면증, 성욕 상실, 식욕부진 등의 생리적 변화, 다섯째, 흥분이나 지연 등의 활동수준 변화이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은 대학생의 우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Beck, Ward, Mock & Erbaugh(1961)이 개발한 BDI를 적용하였으며, 해당 우울척도는 주요하게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 동기적 등 총 4개의 하위요인과 총 21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서인숙, 2017).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의 우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성이 높은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BDI를 적용하고자 한다.

제4절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

1.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

대학생은 발달과정의 과도기에 있는 시기로서 진로 및 직업 문제, 가족관계, 대인관계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관의 변화를 겪는다. 특히, 대학생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할 및 기능에 직면하고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대인관계로부터의 심리적 갈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학업 참여, 장래 직업의 선택 및 결정 등의 다양한 현실적인 상황과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다음은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관한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원이 경험하고 겪는 스트레스는 가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가족 전체의 문제로 발전되긴 하지만(황동섭, 2013), 가족의 건강성이 높을수록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행동이 탁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위종휘, 2012; 이효진, 2017). 최정혜(2015), 현은민(2017), 서정희(2017)는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 건강성 연구를 통해서, 가족 건강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각 능력이 높음을 보였다. 한편, 최정혜(2015)는 가족 건강성에 대한 대학생의 지각 능력은 고등학생에 비해 높지만, 성인들보다 낮음을 보였으며, 이는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가 아닌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성인이 될수록 강해지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송인숙, 홍달아기, 박현성(2013)의 연구에서는 가족 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뀔수록 가족의 건강성이 낮게 나타나고, 별거 중인 가족의 건강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났지만,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은 유의한 차이는 없고, 중·하위 집단이 상위 집단과 비교해서 가족 건강성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한편, 김면정(2010)은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수준과 가족 건강성과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가족 적응성과 가족 응집성의 수준이 낮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은 높고, 이때, 스트레스는 개인의 적성, 경제적 소득 문제, 학교생활 속에서의 대인관계 순으로 높게 나타남을 보였다. 즉, 가족 건강성에 대해 대학생이 높게 지각할수록 전반적인 생활 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졌으며, 대학생들은 학업·진로와 관련한 스트레스는 인지하지만, 직접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어려운 관계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다. 아울러, 이선미(2014)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는 전반적으로 낮지만, 학업, 가치관, 직업과 관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박혜주(2016)는 대졸 취업준비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취업과 관련 스트레스 중 학업, 가족 환경, 성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중이 줄어들음을 보였다. 또한, 가족 건강성의 하위요인 중 가족 간 유대감이 높고 가족 적응성이 낮을수록 높은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보였다. 최미혜(2017)는 대학생 자녀의 취업 스트레스는 가족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 크게 극복될 수 있지만, 지나친 가족의 관심과 기대는 대학생 자녀에게 오히려 큰 부담과 무언의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영민(2009)은 유대감과 존중감이 높은 건강한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과 비교해 가족원들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존 선행연구들은 가족의 건강성과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상호작용과 유의미한 관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다수의 연구가 가족 기능 및 건강성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해소 및 극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감

국내외 많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다양한 정서적·심리적·신체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은 우울감의 경험 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강할수록 우울의 경험 및 정도는 비례하여 증가한다. Hammarstrom & Janlert(1977)은 5년간 스웨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실업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하면, 불안, 우울, 신경 쇠약 등의 증상이 발생 및 증가하는 등 취업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보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장재윤, 김은정, 신희천(2004)은 청년들의 구직기간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취업 상태에 대한 불안과 그로 인한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서적·심리적인 경험은 청년들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박경란(2006)은 대학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의 요인에 관한 설문 연구에서,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요인이 18.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슬아, 김효원, 박부진(2016)은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은 다시금 취업 실패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금 취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등의 악순환 관계에 있음을 보였으며, 윤명숙과 이효선(2012)은 높은 취업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 경험은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으로부터, 대학생을 포함한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의 관계에서 우울감의 영향을 매개효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가족 건강성과 우울감

가족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스트레스, 우울증 등 부정적인 심리적 정서를 살펴볼 수 있다.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불안정한 정신건강 상태이며, 우울 증상은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고, 우울 증상이 계속되면 가족의 관계에 있어 가족원 간의 갈등, 불화, 다툼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이진숙, 최원석, 2011).

다음은 가족 건강성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 관한 고찰이다. 이선미와 김경신(2012)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가족 건강성이 우울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고, 전해정, 민성혜, 이민영, 최혜영(2009)은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 건강성이 우울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지민(2010), 김경신(2012), 박형원(2015), 그리고 이순희와 차은정(2018)은 우울감이 높을수록 대학생을 포함한 가족의 건강성이 낮아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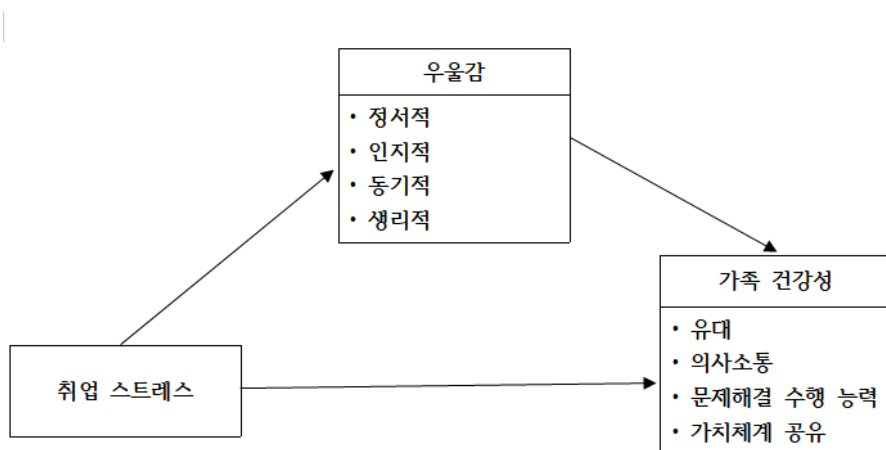
이처럼, 선행연구 고찰로부터 가족의 건강성 정도는 우울감의 정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가족 구성원 및 가족 기능을 독립변수, 취업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간주하여 가족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지속적인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출현으로 인한 소비경제 정체 및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패권 경쟁 등 대외 악재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은 장기적으로 대학생의 취업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종속변수를 가족 건강성으로, 우울감을 매개변인으로, 취업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가족관계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그림 1 > 연구모형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과 우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따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취업 스트레스, 종속변수인 가족 건강성, 매개변수인 우울감을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등 4개의 하위 다중 매개변수들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그에 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1.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2.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이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1.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이 우울감의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우울감이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4.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따라 우울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제2절 연구대상

1. 연구대상

자료수집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22년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97부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학생 112명(56.9%), 남학생 85명(43.1%)으로 여학생이 조금 더 많았다. 학력 기준을 살펴보면 대학교 이상 185명(93.9%), 전문대학 12명(6.1%)으로 4년제 대학교에 재학인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학년 간의 비율을 살펴보면 4학년(정규) 65명(33.0%), 4학년(수료 유예) 47명(23.9%), 3학년 38명(19.3%), 2학년 30명(15.2%), 1학년 17명(8.6%)으로 4학년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학교 소재지는 서울권 107명(54.3%), 수도권 이외 지역 57명(28.9%), 경기권 26명(13.2%), 인천권 7명(3.6%)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 분야는 인문사회계열 94명(47.7%), 자연계열 60명(30.5%), 기타 22명(11.2%), 예체능 21명(10.7%)으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았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76명(38.6%), 보통 58명(29.4%), 매우 만족 43명(21.8%), 불만족 19명(9.6%), 매우 불만족 1명(0.5%)으로 만족도가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은 ‘중’ 116명(58.9%), ‘상’ 73명(37.1%), ‘하’ 8명(4.1%)으로 중위권 성적의 학생들 비율이 많았다. 휴학 경험은 없음 116명(58.9%), 있음(군 휴학 제외) 81명(41.1%)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진로에 대한 방향은 취업 152명(77.2%), 진학 및 기타 45명(22.8%)으로 취업에 대한 진로 방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만족도

는 ‘중’ 106명(53.8%), ‘상’ 74명(37.6%), ‘하’ 17명(8.6%)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정도는 ‘중’ 90명(45.7%), ‘하’ 66명(33.5%), ‘상’ 41명(20.8%)으로 ‘중’에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경제력 수준은 ‘중’ 113명(57.4%), ‘상’ 53명(26.9%), ‘하’ 31명(15.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85	43.1
	여성	112	56.9
학교유형	전문대학	12	6.1
	대학교 이상	185	93.9
학년	1학년	17	8.6
	2학년	30	15.2
	3학년	38	19.3
	4학년(정규)	65	33.0
	4학년(수료 유예)	47	23.9
학교소재지	서울권	107	54.3
	경기권	26	13.2
	인천권	7	3.6
	그 외 지역	57	28.9
전공	인문사회계열	94	47.7
	자연계열	60	30.5
	예체능	21	10.7
	기타	22	11.2
전공만족도	매우 만족	43	21.8
	만족	76	38.6
	보통	58	29.4
	불만족	19	9.6
	매우 불만족	1	0.5
성적	상	73	37.1
	중	116	58.9
	하	8	4.1
휴학경험	없음	116	58.9
	있음 (군휴학 제외)	81	41.1
진로방향	취업	152	77.2
	진학 및 기타	45	22.8
학교만족도	상	74	37.6
	중	106	53.8
	하	17	8.6
취업준비정도	상	41	20.8
	중	90	45.7
	하	66	33.5
경제수준	상	53	26.9
	중	113	57.4
	하	31	15.7
합계		197	100.0

제3절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1. 연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했으며, 각 변수에 대한 구성개념의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의 측정문항을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독립변수로 취업 스트레스를 사용하였고 매개변수는 우울감을, 종속변수는 가족 건강성으로 설정하였다.

가. 취업 스트레스 척도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renell Medical Index : CMI)을 참고하여 황성원(1998)이 개발한 취업 스트레스 척도를 분석한 김나현(2007)이 만든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에서 5점을 부여하는 리커트(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을 부여하는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권연숙(2017)이 사용한 취업 스트레스 척도로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내적 일관성 확인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값(Cronbach's alpha)을 통한 신뢰도 검사를 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948로 나타났다.

<표 2> 취업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변수명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취업 스트레스	40	1-40	.948

나. 가족 건강성 척도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4개 영역(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행 능력, 가치체계 공유)으로 구성된 어은주와 유영주(1995)가 제작한 가족 건강성 척도(Family Strengths Scale: KFSS)를 사용하였다. 총 34문항으로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을 부여하는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건강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의미한다. 4개 영역의 하위요인으로 가족원의 유대와 관련된 문항 10문항, 의사소통은 8문항, 문제해결 수행능력은 6문항, 가치체계 공유 문항은 10문항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지의 Cronbach's α 값은 .969로 각 항목의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가족 건강성의 하위차원과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도

	변수명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가족 건강성	가족원 유대	10	2, 5, 9, 14, 18, 21, 24, 27, 31, 33	.942
	의사소통	8	1, 4, 13, 17*, 20, 23, 26, 30	.906
	문제해결 수행능력	6	3, 6, 10, 15, 19, 28*	.850
	가치체계공유	10	7, 8, 11, 12, 16, 22, 25, 29, 32, 34	.919
	전체	34	1-34	.969

*: 역채점 문항

다. 우울감 척도

대학생의 우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Beck, Ward, Mock & Erbaugh(1961) 등이 개발하고,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rtort: BDI)를 사용했다. 4개의 하위유형으로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유형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4점 척도로 0점~3점까지의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 값은 .969로 각 문항의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우울감의 하위차원과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도

변수명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우 울 감	정서적	6	1, 2, 5, 7, 9, 10	.880
	인지적	5	3, 6, 8, 13, 14	.863
	동기적	5	4, 11, 12, 15, 17	.862
	생리적	5	16, 18, 19, 20, 21	.817
전체		21	1-21	.932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이 우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197부의 자료를 SPSS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가족 건강성, 우울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 및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취업 스트레스, 가족 건강성, 우울 간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가족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2.692(SD=.714)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의 점수를 살펴보면 ‘나는 졸업 후 취업해야 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담스럽다’ 문항의 평균이 3.365(SD=1.232)이 가장 높았고, ‘나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다’ 문항의 평균이 3.355(SD=1.369), ‘요즘 매스컴에서 접하게 되는 취업난이 나 자신에게도 절실하게 다가온다’ 문항의 평균이 3.340(SD=1.191)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의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좋지 못한 인상 때문에 취업에 불리할 것 같다’ 문항의 평균이 1.883(SD=1.084), ‘나는 키가 작아서 취업에 불리할 것 같다’ 문항의 평균이 1.736(SD=1.13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경향

영역	문항 번호	문항	M	SD
취업 스트레스	1	나는 대학생생활을 하면서 학과공부보다 취업 공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2.782	1.216
	2	나는 현재 하고 있는 학과 공부는 취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2.970	1.195
	3	나는 취업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이다.	2.020	1.045
	4	나의 전공학과는 취업수요가 적은 학과여서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2.888	1.354

5	나는 취업공부로 학점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2.234	1.132
6	내가 흥미와 적성을 가졌지만 취업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3.010	1.208
7	나는 나름대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 잘되지 않은 것 같다.	3.071	1.172
8	나는 현재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따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3.041	1.124
9	내가 장차 종사하고 싶은 직업이 있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성취가 어려울 것 같다.	3.000	1.169
10	현재 나의 전공과 내가 장차 원하는 직업은 많은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2.706	1.330
11	나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만 취업 걱정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된다.	2.746	1.223
12	나는 요즘 취업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된다.	2.523	1.288
13	취직자리를 놓칠까봐 많은 시간을 취업정보센터나 신문잡지의 구직란을 본다.	2.239	1.190
14	내가 만약 취업이 된다 해도 이 이후에 겪게될 어려움들이 미리 걱정된다.	2.985	1.334
15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취업을 해야 하지만, 자꾸 자신감이 없어진다.	3.056	1.329
16	나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다.	3.355	1.369
17	나는 졸업 후의 취업에 대한 압박감으로 대학생 활의 낭만을 누리지 못한다.	2.792	1.302
18	나는 요즘 친구나 선후배를 만나면 취업에 대한 걱정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990	1.254
19	나는 졸업 후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지금 너무 불안하다.	3.269	1.379
20	요즘 꿈속에서도 취업걱정을 한다.	2.299	1.324
21	나의 실력에 대해 실망이 되고 모두 나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이 든다.	2.990	1.254
22	나는 흥미와 노력이 다양하지만 원하는 직업을 택하기가 어렵다.	3.157	1.310
23	나는 졸업 후 취업을 해야 하지만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다.	2.254	1.219
24	나는 키가 작아서 취업에 불리할 것 같다.	1.736	1.139
25	나는 좋지 못한 인상 때문에 취업에 불리할 것 같다.	1.883	1.084
26	직업에 대한 나의 목표가 너무 높아서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	2.635	1.249
27	나는 지방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조건에서 불리할 것 같다.	1.985	1.231

28	나의 지도교수님이 나의 취업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 섭섭하다.	2.503	1.236
29	나는 졸업 후 취업해야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담스럽다.	3.365	1.232
30	지금으로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취직할 곳이 없어 착잡한 심정이다.	2.558	1.162
31	지금 현실은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취업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	3.213	1.219
32	요즘 마스크에서 접하게 되는 취업난이 나 자신에게도 절실하게 다가온다.	3.340	1.191
33	나는 졸업 후 다른 것을 하고 싶지만 집안에서는 취업을 요구한다.	2.457	1.218
34	나의 졸업 후 취업문제에 대하여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	2.888	1.220
35	가족들이 실망할까봐 취업을 해야 하지만 어렵다.	2.934	1.294
36	나의 경제사정으로 졸업 후 취업해야 하지만 몹시 어렵다.	2.751	1.299
37	나는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어 취업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2.360	1.289
38	나는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지만 집안사정상 돈을 벌어야 한다.	2.203	1.328
39	나의 대학 공부 때문에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내가 취업하여 해결해야 한다.	2.269	1.271
40	부모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직업을 권유하신다.	2.213	1.210
계		2.692	.714

N=197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차이 검정을 통해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학년($t=-2.147$, $p<.05$), 성적($F=3.329$, $P<0.5$), 취업준비정도($F=8.358$, $p<0.001$), 경제수준($F=18.186$,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의 경우 1-2학년($M=2.498$)보다 3-4학년($M=2.752$)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취업준비정도의 경우

‘상(M=2.303)보다 하(M=2.764), 중(M=2.816)의 평균값이 높았다. 경제 수준의 경우 상(M=2.764), < 중(M=2.774) < 하(M=3.115)’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적의 경우는 차이가 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성별(t=-.357, p=.722), 휴학여부(t=-1.069, p=.287), 전공(F=.227, p=.797)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

변수	취업스트레스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성별	남성	85	2.671	.765	-.357	.722	
	여성	112	2.708	.676			
학년	1-2 학년(a)	47	2.498	.647	-2.147*	.033	a<b
	3-4 학년(b)	150	2.752	.725			
휴학여부	없음	116	2.646	.719	-1.069	.287	
	있음(군휴학 제외)	81	2.757	.707			
전공	인문사회계열(a)	94	2.727	.744	.227	.797	
	자연계열(b)	60	2.652	.680			
	기타(예체능포함)(c)	43	2.670	.705			
성적	하(a)	8	3.131	.347	3.329*	.038	NA
	중(b)	116	2.748	.690			
	상(c)	73	2.553	.754			
취업준비 정도	하(a)	66	2.764	.673	8.358***	.000	c<a,b
	중(b)	90	2.816	.661			
	상(c)	41	2.303	.769			
경제수준	하(a)	31	3.115	.616	18.186***	.000	c<b<a
	중(b)	113	2.774	.673			
	상(c)	53	2.269	.652			

*p<.05, **p<.01, ***p<.001

2.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의 차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하위차원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취업 스트레스의 경우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은 가족원 유대(F=6.199, p<0.1), 의사소통(F=7.170, p<0.1), 문제해결 수행능력(F=8.189 p<0.001), 가치체계공유(F=7.752, p<0.001)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가족원 유대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이 상(M=3.515)보다 하(M=4.037)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의사소통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이 상(M=3.324)보다 하(M=3.883)의 평균값이 높았다. 문제해결 수행능력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이 상(M=3.370)보다 하(M=3.932)의 평균값이 높았다. 가치체계공유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이 중(M=3.266), 상(M=3.167)보다 하(M=3.715)의 평균값이 높았다. 가족유대원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이 상(M=3.515)보다 하(M=4.037)의 평균값이 높음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가 낮은(하) 응답자가 가족유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취업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차이

가족 건강성	취업스트레스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정
가족원유대	하(a)	59	4.037	.862	6.199**	.002	c<a
	중(b)	65	3.723	.801			
	상(c)	73	3.515	.878			
의사소통	하(a)	59	3.883	.838	7.170**	.001	c<a
	중(b)	65	3.590	.803			
	상(c)	73	3.324	.885			
문제해결 수행능력	하(a)	59	3.932	.716	8.189***	.000	c<a
	중(b)	65	3.595	.815			
	상(c)	73	3.370	.836			
가치체계공유	하(a)	59	3.715	.854	7.752**	.001	b,c<a
	중(b)	65	3.266	.779			
	상(c)	73	3.167	.859			

p<.01, *p<.001

3.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차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감의 하위차원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했으며 취업 스트레스의 경우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했다.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은 정서적(F=22.389, p<.001), 인지적(F=26.618, p<.001), 동기적(F=26.163, p<.001), 생리적(F=11.582, p<.001)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정서적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이 하(M=1.333)와 중(M=1.559)보다 상(M=1.927)의 평균값이 높았다. 인지적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이 하(M=1.285)와 중(M=1.514)보다 상(M=1.981)의 평균값이 높았다. 동기적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이 하(M=1.397)와 중(M=1.640)보다 상(M=2.126)의 평균값이 높았다. 생리적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이 하(M=1.319), 중(M=1.434)보다 상(M=1.753)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표 8> 취업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우울감	취업 스트레스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정
정서적	하(a)	59	1.333	.369	22.389***	.000	a,b<c
	중(b)	65	1.559	.435			
	상(c)	73	1.927	.664			
인지적	하(a)	59	1.285	.414	26.618***	.000	a,b<c
	중(b)	65	1.514	.553			
	상(c)	73	1.981	.666			
동기적	하(a)	59	1.397	.442	26.163***	.000	a,b<c
	중(b)	65	1.640	.591			
	상(c)	73	2.126	.696			
생리적	하(a)	59	1.319	.362	11.582***	.000	a,b<c
	중(b)	65	1.434	.572			
	상(c)	73	1.753	.633			

***p<.001

제2절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의 전반적 경향

가족 건강성을 가족원 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치체계공유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경향은 <표 9>와 같다.

가족 건강성 전체의 평균은 3.574(SD=.819)이었으며, 하위차원 중에는 가족원유대(M=3.740, SD=.871)이 가장 높았고, 문제해결 수행능력(M=3.613, SD=.824), 의사소통(M=3.579, SD=.871), 가치체계공유(M=3.364, SD=.860)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원유대의 경우, '우리 가족은 가정에 충실하다' 문항의 평균이 3.975(SD=.955)로 가장 높았고, '힘들어하는 가족원이 있을 때는 다른 가족도 그 이유를 알고 있다' 문항의 평균이 3.508(SD=1.119)로 가장 낮았다.

문제해결 수행능력의 경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문항의 평균이 3.975(SD=1.052)로 가장 높았고, '우리 가족 간의 의견 차이는 극복하기가 어렵다' 문항의 평균이 3.086(SD=1.244)로 가장 낮았다.

의사소통의 경우, '우리 가족은 서로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문항의 평균이 3.701(SD=1.072)로 가장 높았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가족에게 말할 수 있다' 문항의 평균이 3.482(SD=1.172)로 가장 낮았다. 가치체계공유의 경우,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준다' 문항의 평균이 3.878(SD=1.048)로 가장 높았고, '우리 가족은 관심사와 취미와 같다' 문항의 평균이 2.858(SD=1.18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9> 가족 건강성 및 하위차원의 전반적 경향

영역	문항 번호	문항	M	SD
가족원 유대	2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하는 일을 한다.	3.645	1.028
	5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원에게 더 친근하다.	3.904	1.137
	9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3.873	.994
	14	우리 가족은 서로를 감싸준다.	3.888	1.063
	18	우리 가족은 가정에 충실하다.	3.975	.955
	21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한다.	3.614	1.099
	24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보인다.	3.827	1.045
	27	힘들어하는 가족원이 있을 때는 다른 가족도 그 이유를 알고 있다.	3.508	1.119
	31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진실하다.	3.614	1.071
	33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애정을 표현한다.	3.553	1.201
가족원유대 계			3.740	.871
의사 소통	1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3.579	1.107
	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다.	3.487	1.081
	13	자기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가족에게 말할 수 있다.	3.482	1.172
	17*	우리 가족은 서로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	3.503	1.206
	20	결정할 일이 있을 때에는 가족 모두가 의견을 제시한다.	3.558	1.103
	23	우리 가족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직접 말한다.	3.685	1.135
	26	우리는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3.640	1.087
	30	우리 가족은 서로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3.701	1.072
의사소통 계			3.579	.871
문제 해결 수행 능력	3	문제를 해결할 때, 가족원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이 되도록 노력한다.	3.863	1.023
	6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	3.716	1.069
	10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3.975	1.052
	15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 모두가 책임을 동등하게 진다.	3.350	1.131
	19	우리는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3.685	.996
	28*	우리 가족 간의 의견 차이는 극복하기가 어렵다.	3.086	1.244
문제해결 수행능력 계			3.613	.824
가치 체계 공유	7	온 가족이 함께 할 일을 결정하기는 매우 쉽다.	3.406	1.101
	8	우리 가족은 서로 믿으며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산다.	3.147	1.201
	11	우리 가족은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다.	3.477	1.223
	12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규칙은 명확하다.	3.508	1.100
	16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준다.	3.878	1.048
	22	우리 가족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일치한다.	3.584	1.078
	25	우리 가족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일치한다.	3.563	1.094
	29	우리 가족만의 전통이 있다.	3.025	1.066
	32	우리 가족은 관심사와 취미와 같다.	2.858	1.182
	34	우리는 가족의 규칙이나 가치관을 함께 만든다.	3.193	1.188
가치체계공유 계			3.364	.860
가족 건강성 계			3.574	.819

* 역채점 문항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가족원 유대의 차이

인구통계 변수가 가족 건강성의 하위차원인 가족원유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차이검정(t-검정, ANOVA)을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경제수준(F=5.3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M=3.294)보다 중(M=3.791), 상(M=3.892)의 평균값이 높았다. 즉,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중간이나 높은 경우가 가족원의 유대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성별($t=-.298$, $p=.766$), 학년($t=1.214$, $p=.226$), 휴학여부($t=-1.123$, $p=.263$), 전공(F=2.475, $p=.087$), 성적(F=.899, $p=.409$), 취업준비정도(F=.011, $p=.989$)는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0>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가족원 유대의 차이

변수	가족원유대	N	평균	표준 편차	t/F	p	Scheffe
성별	남성	85	3.719	.893	-.298	.766	
	여성	112	3.756	.857			
학년	1-2 학년	47	3.874	.801	1.214	.226	
	3-4 학년	150	3.698	.890			
휴학여부	없음	116	3.682	.945	-1.123	.263	
	있음(군휴학 제외)	81	3.823	.750			
전공	인문사회계열(a)	94	3.605	.930	2.475	.087	
	자연계열(b)	60	3.808	.754			
	기타(예체능포함)(c)	43	3.940	.858			
성적	하(a)	8	3.863	.953	.899	.409	
	중(b)	116	3.671	.893			
	상(c)	73	3.837	.826			
취업준비 정도	하(a)	66	3.727	.911	.011	.989	
	중(b)	90	3.747	.840			
	상(c)	41	3.746	.894			
경제수준	하(a)	31	3.294	.914	5.305**	.006	a<b,c
	중(b)	113	3.791	.794			
	상(c)	53	3.892	.933			

** $p<.01$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의사소통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가족 건강성의 하위차원인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차이검정(t-검정, ANOVA)을 실시했으며,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경제수준($F=5.336,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M=3.125$)보다 중($M=3.643$), 상($M=3.710$)의 평균값이 높았다. 즉,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중간이나 높은 경우가 의사소통이 큼(많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성별($t=-.081, p=.936$), 학년($t=1.716, p=.088$), 휴학여부($t=-1.198, p=.232$), 전공($F=1.363, p=.258$), 성적($F=.214, p=.807$), 취업준비정도($F=.320, p=.727$)는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1>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대학생의 의사소통의 차이

변수	의사소통	N	평균	표준 편차	t/F	p	Scheffe
성별	남성	85	3.574	.859	-.081	.936	
	여성	112	3.584	.884			
학년	1-2 학년	47	3.769	.835	1.716	.088	
	3-4 학년	150	3.520	.877			
휴학여부	없음	116	3.517	.935	-1.198	.232	
	있음 (군휴학 제외)	81	3.668	.767			
전공	인문사회계열(a)	94	3.480	.949	1.363	.258	
	자연계열(b)	60	3.625	.753			
	기타(예체능포함)(c)	43	3.733	.838			
성적	하(a)	8	3.578	.921	.214	.807	
	중(b)	116	3.546	.855			
	상(c)	73	3.632	.900			
취업준비 정도	하(a)	66	3.517	.912	.320	.727	
	중(b)	90	3.592	.852			
	상(c)	41	3.652	.858			
경제수준	하(a)	31	3.125	.908	5.336**	.006	a<b,c
	중(b)	113	3.643	.835			
	상(c)	53	3.710	.856			

**p<.01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차이

인구통계 변수가 가족 건강성의 하위차원인 문제해결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차이검정(t-검정, ANOVA)을 실시했으며,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경제수준($F=4.280,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M=3.226$)보다 중($M=3.667$), 상($M=3.723$)의 평균값이 높았다. 즉,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중간이나 높은 경우가 문제해결수행능력이 좋을 수 있었다. 반면 성별($t=.250, p=.803$), 학년($t=1.400, p=.163$), 휴학여부($t=-.829, p=.408$), 전공($F=2.228, p=.111$), 성적($F=.612, p=.543$), 취업준비정도($F=.915, p=.402$)는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2>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대학생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차이

변수	문제해결수행능력	N	평균	표준 편차	t/F	p	Scheffe
성별	남성	85	3.629	.803	.250	.803	
	여성	112	3.600	.842			
학년	1-2 학년	47	3.759	.762	1.400	.163	
	3-4 학년	150	3.567	.839			
휴학여부	없음	116	3.572	.869	-.829	.408	
	있음(군휴학 제외)	81	3.671	.755			
전공	인문사회계열(a)	94	3.491	.912	2.228	.111	
	자연계열(b)	60	3.675	.664			
	기타(예체능포함)(c)	43	3.791	.795			
성적	하(a)	8	3.396	.913	.612	.543	
	중(b)	116	3.583	.793			
	상(c)	73	3.683	.865			
취업준비 도	하(a)	66	3.508	.847	.915	.402	
	중(b)	90	3.643	.803			
	상(c)	41	3.715	.832			
경제수준	하(a)	31	3.226	.834	4.280 *	.015	a<b,c
	중(b)	113	3.667	.810			
	상(c)	53	3.723	.797			

* $p<.05$

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가치체계 공유의 차이

인구통계 변수가 가족 건강성의 하위차원인 가치체계 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차이검정(t-검정, ANOVA)을 실시했으며 분석결과는 <표 13>과 같다. 경제수준(F=7.320,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M=2.861)보다 중(M=3.408), 상(M=3.564)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즉,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보다 중간이나 높은 경우가 가치체계공유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t=-.641, p=.522), 학년(t=1.461, p=.146), 휴학여부(t=-.541, p=.589), 전공(F=1.471, p=.232), 성적(F=1.154, p=.317), 취업준비정도(F=.513, p=.599)는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3>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대학생의 가치체계 공유의 차이

변수	가치체계공유	N	평균	표준 편차	t/F	p	Scheffe
성별	남성	85	3.319	.842	-.641	.522	
	여성	112	3.398	.876			
학년	1-2 학년	47	3.523	.827	1.461	.146	
	3-4 학년	150	3.314	.867			
휴학여부	없음	116	3.336	.888	-.541	.589	
	있음(군휴학 제외)	81	3.404	.823			
전공	인문사회계열(a)	94	3.268	.920	1.471	.232	
	자연계열(b)	60	3.392	.738			
	기타(c)	43	3.535	.873			
성적	하(a)	8	3.625	.896	1.154	.317	
	중(b)	116	3.291	.845			
	상(c)	73	3.451	.878			
취업준비 정도	하(a)	66	3.288	.905	.513	.599	
	중(b)	90	3.377	.823			
	상(c)	41	3.459	.875			
경제수준	하(a)	31	2.861	.904	7.320**	.001	a<b,c
	중(b)	113	3.408	.796			
	상(c)	53	3.564	.869			

**p<.01

5.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과 우울감의 차이

가.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과 우울감(정서적)

정서적 우울감 수준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하위차원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우울 정서의 경우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했으며, 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정서적 우울감 수준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차이

가족 건강성	우울정서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검정
가족원유대	하(a)	83	4.073	.728	12.946***	.000	b,c<a
	중(b)	70	3.590	.913			
	상(c)	44	3.350	.838			
의사소통	하(a)	83	3.949	.710	17.609***	.000	b,c<a
	중(b)	70	3.445	.889			
	상(c)	44	3.097	.836			
문제해결 수행능력	하(a)	83	3.976	.678	17.521***	.000	b,c<a
	중(b)	70	3.436	.877			
	상(c)	44	3.208	.712			
가치체계공유	하(a)	83	3.711	.740	13.196***	.000	b,c<a
	중(b)	70	3.136	.823			
	상(c)	44	3.073	.916			

*** $p < .001$

우울감의 정서적 수준은 가족원유대($F=12.946$, $p < .001$), 의사소통($F=17.609$, $p < .001$), 문제해결 수행능력($F=17.521$, $p < .001$), 가치체계공유($F=13.196$, $p < .001$)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가족원 유대의 경우 우울 정서의 수준이 중($M=3.590$), 상($M=3.350$)보다 하($M=4.073$)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의사소통의 경우 우울 정서의 수준이 중($M=3.445$), 상($M=3.097$)보다 하($M=3.949$)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문제해결 수행능력의 경우 우울 정서의 수준이 중(M=3.436), 상(M=3.208)보다 하(M=3.976)의 평균값이 높았다. 가치체계공유의 경우 우울 정서의 수준이 중(M=3.136), 상(M=3.073)보다 하(M=3.711)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나.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과 우울감(인지적)

인지적 우울감 수준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하위차원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했으며, 우울 인지의 경우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인지적 우울감 수준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차이

가족 건강성	우울인지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검정
가족원유대	하(a)	86	3.979	.845	8.338***	.000	c<a
	중(b)	53	3.728	.777			
	상(c)	58	3.397	.886			
의사소통	하(a)	86	3.831	.834	11.839***	.000	c<a,b
	중(b)	53	3.637	.780			
	상(c)	58	3.153	.856			
문제해결 수행능력	하(a)	86	3.886	.780	12.624***	.000	c<a,b
	중(b)	53	3.597	.712			
	상(c)	58	3.221	.833			
가치체계공유	하(a)	86	3.591	.853	6.783**	.001	c<a
	중(b)	53	3.315	.768			
	상(c)	58	3.072	.869			

p<.01, *p<.001

우울인지의 수준은 가족원유대(F=8.338, p<.001), 의사소통(F=11.839, p<.001), 문제해결 수행능력(F=12.624, p<.001), 가치체계공유(F=6.783, p<.01)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가족원유대의 경우 우울인지의 수준이 상(M=3.397)보다 하

(M=3.979)의 평균값이 높았다. 의사소통의 경우 우울인지의 수준이 상(M=3.153)보다 하(M=3.831), 중(M=3.637)의 평균값이 높았다. 문제해결 수행능력의 경우 우울인지의 수준이 상(M=3.221)보다 하(M=3.886), 중(M=3.597)의 평균값이 높았다. 가치체계공유의 경우 우울인지의 수준이 상(M=3.072)보다 하(M=3.591)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다.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과 우울감(동기적)

동기적 우울감 수준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하위차원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했다. 동기적 우울감의 경우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동기적 우울감 수준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차이

가족 건강성	우울동기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검정
가족원유대	하(a)	89	3.971	.819	10.707***	.000	c<a,b
	중(b)	57	3.775	.857			
	상(c)	51	3.298	.821			
의사소통	하(a)	89	3.846	.799	11.514***	.000	c<a,b
	중(b)	57	3.548	.833			
	상(c)	51	3.150	.870			
문제해결 수행능력	하(a)	89	3.846	.769	15.666***	.000	c<a,b
	중(b)	57	3.702	.782			
	상(c)	51	3.105	.751			
가치체계공유	하(a)	89	3.570	.824	7.476**	.001	c<a
	중(b)	57	3.365	.796			
	상(c)	51	3.004	.888			

p<.01, *p<.001

우울동기의 수준은 가족원유대($F=10.707, p<.001$), 의사소통($F=11.514, p<.001$), 문제해결 수행능력($F=15.666, p<.001$), 가치체계공유($F=7.476, p<.01$)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가족원 유대의 경우 우울동기의 수준이 상($M=3.298$)보다 하($M=3.971$), 중($M=3.775$)의 평균값이 높았다.

의사소통의 경우 우울동기의 수준이 상($M=3.150$)보다 하($M=3.846$), 중($M=3.548$)의 평균값이 높았다. 문제해결 수행능력의 경우 우울동기의 수준이 상($M=3.105$)보다 하($M=3.846$), 중($M=3.702$)의 평균값이 높았다. 가치체계공유의 경우 우울동기의 수준이 상($M=3.004$)보다 하($M=3.570$)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라.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과 우울감(생리적)

생리적 우울감 수준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하위차원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우울생리의 경우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했으며, 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다. 생리적 정서의 경우 가족원유대($F=6.829, p<.001$), 의사소통($F=7.608, p<.01$), 문제해결 수행능력($F=8.552, p<.001$)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가족원 유대의 경우 생리적 우울감의 수준이 상($M=3.364$)보다 하($M=3.941$)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의사소통의 경우 생리적 우울감 수준이 상($M=3.190$)보다 하($M=3.795$)의 평균값이 높았다. 문제해결 수행능력의 경우 생리적 우울감의 수준이 상($M=3.187$)보다 하($M=3.797$), 중($M=3.627$)의 평균값이 높았다. 반면 가치체계공유($F=2.92, p=056$)의 경우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7> 생리적 우울감 수준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차이

가족 건강성	우울생리	N	평균	표준 편차	F	p	사후검정
가족원유대	하(a)	92	3.941	.815	6.829**	.001	c<a
	중(b)	63	3.697	.891			
	상(c)	42	3.364	.843			
의사소통	하(a)	92	3.795	.801	7.608**	.001	c<a
	중(b)	63	3.524	.910			
	상(c)	42	3.190	.829			
문제해결수행 능력	하(a)	92	3.797	.825	8.552***	.000	c<a,b
	중(b)	63	3.627	.805			
	상(c)	42	3.187	.699			
가치체계공유	하(a)	92	3.490	.818	2.927	.056	
	중(b)	63	3.351	.900			
	상(c)	42	3.107	.850			

p<.01, *p<.001

제3절 대학생의 우울감의 전반적 경향

우울감을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그리고 생리적 등 4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전반적인 경향은 <표 17>과 같다.

<표 18> 우울감 및 하위차원의 전반적 경향

영역	문항 번호	M	SD
정서적	1	1.838	.710
	2	1.731	.738
	5	1.695	.748
	7	1.695	.762
	9	1.452	.688
	10	1.355	.682
정서적 계		1.628	.570
인지적	3	1.609	.854
	6	1.503	.767
	8	1.726	.767
	13	1.670	.761
	14	1.584	.782
인지적 계		1.618	.632
동기적	4	1.761	.838
	11	1.680	.854
	12	1.772	.841
	15	1.619	.777
	17	1.904	.837
동기적 계		1.747	.666
생리적	16	1.675	.837
	18	1.492	.812
	19	1.391	.681
	20	1.563	.656
	21	1.467	.766
생리적 계		1.518	.572
우울감 계		1.628	.557

전체 평균은 1.628(SD=.557)이었고, 하위요인 중에는 동기적(M=1.747, SD=.666)이 가장 높았고 정서적(M=1.628, SD=.570), 인지적(M=1.618, SD=.632), 생리적

($M=1.518$, $SD=.572$) 순으로 나타났다. 동기적의 경우 17 번 문항의 평균이 1.904($SD=.837$)로 가장 높았으며, 15 번 문항의 평균이 1.619($SD=.777$)로 가장 낮았다.

정서적의 경우 1 번 문항의 평균이 1.838($SD=.710$)으로 가장 높았고, 10 번 문항의 평균이 1.355($SD=.682$)으로 가장 낮았다.

인지적의 경우 8 번 문항의 평균이 1.726($SD=.767$)으로 가장 높았고, 6 번 문항의 평균이 1.503($SD=.767$)으로 가장 낮았다.

생리적의 경우 16 번 문항의 평균이 1.675($SD=.837$)로 가장 높았고, 19 번 문항의 평균이 1.391($SD=.6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생리적 우울감

인구통계 변수가 정서적(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차이검정(t-검정, ANOVA)을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는 <표 19>와 같다. 경제수준($F=3.767$,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M=1.506$)보다 하($M=1.855$)의 평균값이 높았고, 성별($t=-.762$, $p=.447$), 학년($t=-.440$, $p=.660$), 휴학여부($t=.257$, $p=.798$), 전공($F=.990$, $p=.373$), 성적($F=.261$, $p=.771$), 취업준비정도($F=2.401$, $p=.093$)는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9>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정서적 우울감의 차이

변수	정서적(우울)	N	평균	표준 편차	t/F	p	Scheffe
성별	남성	85	1.592	.568	-.762	.447	
	여성	112	1.655	.573			
학년	1-2 학년	47	1.596	.477	-.440	.660	
	3-4 학년	150	1.638	.598			
휴학여부	없음	116	1.636	.539	.257	.798	
	있음 (군휴학 제외)	81	1.615	.616			
	인문사회계열(a)	94	1.661	.603			
전공	자연계열(b)	60	1.542	.440	.990	.373	
	기타(예체능포함)(c)	43	1.674	.653			
	하(a)	8	1.771	.511			
성적	중(b)	116	1.621	.524	.261	.771	
	상(c)	73	1.623	.648			
	하(a)	66	1.732	.599			
취업준비정도	중(b)	90	1.615	.581	2.401	.093	
	상(c)	41	1.488	.471			
	하(a)	31	1.855	.542			
경제수준	중(b)	113	1.622	.599	3.767*	.025	c<a
	상(c)	53	1.506	.487			

*p<.05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인지적 우울감

인구통계 변수가 인지적(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차이검정(t-검정, ANOVA)을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는 <표 20>과 같다. 경제수준($F=4.76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상($M=1.464$)보다 하($M=1.897$)의 평균 값이 높았다. 성별($t=.465$, $p=.643$), 학년($t=-.068$, $p=.946$), 휴학여부($t=-.302$, $p=.763$), 전공($F=.525$, $p=.593$), 성적($F=1.715$, $p=.183$), 취업준비정도($F=2.289$, $p=.104$)는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0>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인지적 우울감의 차이

변수	인지적(우울)	N	평균	표준 편차	t/F	p	Scheffe
성별	남성	85	1.642	.659	.465	.643	
	여성	112	1.600	.613			
학년	1-2 학년	47	1.613	.560	-.068	.946	
	3-4 학년	150	1.620	.655			
휴학여부	없음	116	1.607	.591	-.302	.763	
	있음 (군휴학 제외)	81	1.635	.690			
전공	인문사회계열(a)	94	1.619	.635	.525	.593	
	자연계열(b)	60	1.563	.606			
	기타(예체능포함)(c)	43	1.693	.670			
성적	하(a)	8	2.000	.821	1.715	.183	
	중(b)	116	1.624	.620			
	상(c)	73	1.567	.624			
취업준비정도	하(a)	66	1.709	.671	2.289	.104	
	중(b)	90	1.631	.626			
	상(c)	41	1.444	.556			
경제수준	하(a)	31	1.897	.675	4.761*	.010	c<a
	중(b)	113	1.614	.618			
	상(c)	53	1.464	.592			

* $p<.05$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동기적 우울감

인구통계 변수가 동기적(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차이검정(t-검정, ANOVA)을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는 <표 21>과 같다. 경제수준($F=3.569$,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M=1.581$)보다 하($M=1.974$)의 평균값이 높았고, 성별($t=-1.148$, $p=.252$), 학년($t=-.280$, $p=.780$), 휴학여부($t=-.624$, $p=.533$), 전공($F=2.123$, $p=.122$), 성적($F=1.356$, $p=.260$), 취업준비정도($F=2.596$, $p=.077$)는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1>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동기적 우울감의 차이

변수	동기적(우울)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성별	남성	85	1.685	.641	-1.148	.252	
	여성	112	1.795	.684			
학년	1-2 학년	47	1.723	.661	-.280	.780	
	3-4 학년	150	1.755	.670			
휴학여부	없음	116	1.722	.652	-.624	.533	
	있음(군휴학제외)	81	1.783	.689			
전공	인문사회계열(a)	94	1.728	.675	2.123	.122	
	자연계열(b)	60	1.653	.570			
	기타(예체능포함)(c)	43	1.921	.749			
성적	하(a)	8	2.050	.542	1.356	.260	
	중(b)	116	1.772	.678			
	상(c)	73	1.674	.655			
취업준비정도	하(a)	66	1.839	.667	2.596	.077	
	중(b)	90	1.771	.702			
	상(c)	41	1.546	.546			
경제수준	하(a)	31	1.974	.753	3.569*	.030	c<a
	중(b)	113	1.763	.657			
	상(c)	53	1.581	.598			

* $p<.05$

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생리적 우울감

인구통계 변수가 생리적(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차이검정(t-검정, ANOVA)을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는 <표 22>와 같다. 성별($t=-.605$, $p=.546$), 학년($t=-.856$, $p=.393$), 휴학여부($t=-1.936$, $p=.055$), 전공($F=.866$, $p=.422$), 성적($F=.553$, $p=.576$), 취업준비정도($F=.298$, $p=.743$), 경제수준($F=1.989$, $p=.140$) 모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2>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생리적 우울감의 차이

변수	생리적(우울)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성별	남성	85	1.489	.527	-.605	.546	
	여성	112	1.539	.606			
학년	1-2 학년	47	1.455	.550	-.856	.393	
	3-4 학년	150	1.537	.580			
휴학여부	없음	116	1.450	.519	-1.936	.055	
	있음(군휴학 제외)	81	1.615	.631			
전공	인문사회계열(a)	94	1.496	.580	.866	.422	
	자연계열(b)	60	1.480	.522			
	기타(예체능포함)(c)	43	1.619	.622			
성적	하(a)	8	1.625	.618	.553	.576	
	중(b)	116	1.543	.573			
	상(c)	73	1.466	.571			
취업준비정도	하(a)	66	1.506	.547	.298	.743	
	중(b)	90	1.549	.599			
	상(c)	41	1.468	.561			
경제수준	하(a)	31	1.671	.619	1.989	.140	
	중(b)	113	1.524	.563			
	상(c)	53	1.415	.553			

제4절 상관관계 분석

분석에 사용될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 23>과 같다. 취업 스트레스의 경우 정서적($r=.463, p<.001$), 인지적($r=.475, p<.001$), 동기적($r=.473, p<.001$), 생리적($r=.353, p<.001$)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고, 가족원유대($r=-.305, p<.001$), 의사소통($r=-.324, p<.001$), 문제해결 수행능력($r=-.327, p<.001$), 가치체계공유($r=-.325, p<.001$)과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 정서적 우울감의 경우 인지적($r=.890, p<.001$), 동기적($r=.814, p<.001$), 생리적($r=.675, p<.001$)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가족원유대($r=-.362, p<.001$), 의사소통($r=-.403, p<.001$), 문제해결 수행능력($r=-.431, p<.001$), 가치체계공유($r=-.317, p<.001$)과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 인지적 우울감의 경우 동기적($r=.826, p<.001$), 생리적($r=.717, p<.001$)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 반면 가족원유대($r=-.311, p<.001$), 의사소통($r=-.347, p<.001$), 문제해결 수행능력($r=-.382, p<.001$), 가치체계공유($r=-.268, p<.001$)과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 동기적 우울감의 경우 생리적($r=.731, p<.001$)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 반면 가족원유대($r=-.351, p<.001$), 의사소통($r=-.360, p<.001$), 문제해결 수행능력($r=-.396, p<.001$), 가치체계공유($r=-.290, p<.001$)과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 생리적 우울감의 경우 가족원 유대($r=-.257, p<.001$), 의사소통($r=-.251, p<.001$), 문제해결 수행능력($r=-.296, p<.001$), 가치체계공유($r=-.164, p<.05$)과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 가족원 유대의 경우 의사소통($r=.932, p<.001$), 문제해결 수행능력($r=.889, p<.001$), 가치체계공유($r=.891, p<.001$)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의사소통의 경우 문제해결 수행능력($r=.901, p<.001$), 가치체계공유($r=.874, p<.001$)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문제해결수행 능력의 경우 가치체계공유($r=.823, p<.001$)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표 23>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취업스트레스	1														
2. 정서적	.463***	1													
3. 인지적	.475***	.890***	1												
4. 동기적	.473***	.814***	.826***	1											
5. 생리적	.353***	.675***	.717***	.731***	1										
6. 가족원유대	-.305***	-.362***	-.311***	-.351***	-.257**	1									
7. 의사소통	-.324***	-.403***	-.347***	-.360***	-.251***	.932***	1								
8. 문제해결수행능력	-.327***	-.431***	-.382***	-.396***	-.296***	.889***	.901***	1							
9. 가치체계공유	-.325***	-.317***	-.268***	-.290***	-.164*	.891***	.874***	.823***	1						
10. 성별	.026	.055	-.033	.082	.043	.021	.006	-.018	.046	1					
11. 학년	.152*	.031	.005	.020	.061	-.087	-.122	-.100	-.104	.089	1				
12. 전공	-.038	-.013	.032	.090	.072	.157*	.117	.149*	.122	-.194**	-.123	1			
13. 휴학경험	.076	-.018	.022	.045	.142*	.080	.085	.059	.039	.186**	.226**	.039	1		
14. 경제수준	.393***	.187**	.210**	.188**	.141*	-.199**	-.191**	-.172*	-.241***	-.040	-.060	.023	.097	1	
15. 성적	.176*	.024	.099	.108	.075	-.065	-.041	-.077	-.046	-.057	-.054	.130	-.005	.068	1

제5절 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

우선, 매개효과가 유의하기 위해서는 가설1(1단계)과 가설3(2단계)이 유의한 상황에서 3단계 분석을 확인해야 한다. 3단계를 위해 종속변수에 대해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3단계에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매개변수인 우울감이 종속변수인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야 하며, 두 번째는 독립변수인 취업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의 영향력보다 감소해야 한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인 태도를 16.9%를 설명하고 있다($R^2=.169$, $F=19.773$, $p<.001$).

회귀식 분석결과, 취업스트레스($\beta=-.202$, $p<.01$)와 우울감($\beta=-.274$, $p<.001$)은 가족 건강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하였고, 두 번째 조건을 위해 2단계인 가설3의 영향력($\beta=-.335$)과 3단계에서의 취업 스트레스의 영향력($\beta=-.202$)을 비교하였다. 2단계에 비해 3단계의 영향력이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분매개효과).

<표 24> 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모형)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411 ^a	.169	.161	.750

<표 25> 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분산분석)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22.249	2	11.125	19.773***	.000
1 잔차	109.147	194	.563		
합계	131.397	196			

예측값: (상수),
 우울, 취업스트레스
 종속변수: 가족 건강성

<표 26> 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회귀식분석)

모형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β		
(상수)	4.852	.219		22.116***	.000
1 취업스트레스	-.231	.086	-.202	-2.696**	.008
우울감	-.402	.110	-.274	-3.66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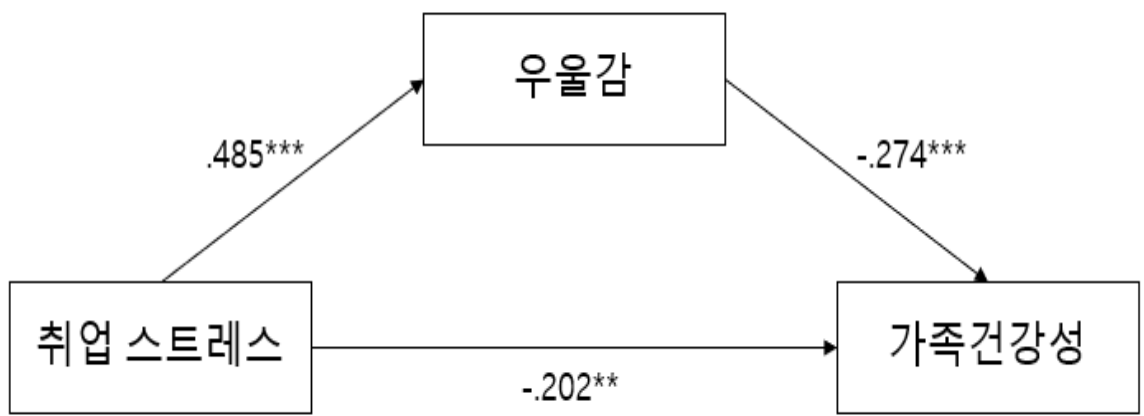
종속변수: 가족 건강성
 p<.01, *p<.001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 를 실시했으며, Sobel test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우울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정통계량($Z=-4.521$, $p<.001$)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의 관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 우울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

경로	a(SEa)	b(SEb)	Zab
취업 스트레스 → 우울감 → 가족 건강성	.379(.049)	-.546(.098)	-4.521***

***p<.001



< 그림 2 >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
 우울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Sobel test)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가족의 개념 및 구조와 기능이 변화됨에 따라, 건강한 가족 및 생활에 관한 관심 및 중요성이 빠르게 증대되었다. 게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 환경 및 고금리와 고환율로 인한 산업 전반에 걸친 고용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고용시장 침체와 오랫동안 지속해온 가족 건강성 변화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고용불안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의 관계에서 우울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 및 4년제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ANOVA, t-검정,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 분석한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가족 건강성의 하위차원인 가족원 유대($F=6.199, p<0.1$), 의사소통($F=7.170, p<0.1$), 문제해결 수행능력($F=8.189, p<0.001$), 가치체계공유($F=7.752, p<0.001$)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원 유대와 의사소통이 높았다. 또한, 문제해결 수행능력과 가치체계 공유는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가족 건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저하되는 연구결과와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수준은 우울감의 하위차원인 정서적($F=22.389$, $p<.001$), 인지적($F=26.618$, $p<.001$), 동기적($F=26.163$, $p<.001$), 생리적($F=11.582$, $p<.001$)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우울감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게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우울감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셋째, 대학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우울감 수준은 가족 건강성의 하위차원인 가족원 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치체계공유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 우울 정서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원 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치체계공유가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 인지의 수준 또한 낮을수록 가족원 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치체계공유가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동기적 우울감과 생리적 우울감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원 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치체계공유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우울감이 가족의 건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넷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우울감의 영향은 경제 수준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학년, 휴학 여부, 전공, 성적, 취업 준비 정도 등의 여타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대학생의 생리적 우울감에서 성별, 학년, 휴학 여부, 전공, 성적, 취업 준비 정도, 경제 수준 등 모든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 수준이 대학생의 우울감의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취업 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정서적($r=.463$, $p<.001$), 인지적($r=.475$, $p<.001$), 동기적($r=.473$, $p<.001$), 생리적($r=.353$, $p<.001$) 우울감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고, 가족원유대($r=-.305$, $p<.001$), 의사소통($r=-.324$, $p<.001$), 문제해결 수행능력($r=-.327$, $p<.001$), 가치체계공유($r=-.325$, $p<.001$) 등의 가족 건강성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우울감은

가족원 유대,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치체계공유 등의 가족 건강성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취업 스트레스($\beta = -.202, p < .01$)와 우울감($\beta = -.274, p < .001$)은 가족 건강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은 가족 건강성의 변화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이며, 아울러 우울감의 수준 또한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대학생의 경제적 수준은 우울감뿐만 아니라 취업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 간의 새로운 관계성을 알아보고 우울감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가족 건강성을 새롭게 관찰하고 분석하는데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다음은 본 연구의 향후 연구 계획에 관해 기술한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가족 건강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거나 취업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가 가족 건강성과 취업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가족 건강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여 취업 스트레스가 가족 건강성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의 관계에서 보다 다양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고려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경훈(2009).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강슬아(201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강유리(2006).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권연숙(2019). 가족건강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교현(2006).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55-68.
- 김나현(2007). 대학생의 '빛속의 사람 그림' 반응특성과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 김다영(2019).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면정(2010).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적응성 및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김미영(2017).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희망을 통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4(6), 29-51.
- 김미정, 임차영(2019). 보건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5), 287-293.

- 김성일, 정용철(2001).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가정환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5-28.
- 김은하, 엄나연(2016). 취업스트레스가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5), 619-630.
- 김정아(2014). 비서학 전공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 준비 행동,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비서학논총, 23(1), 141-164.
- 김진희(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 통제력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혜정(2004).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과의 관련성.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 박은조(2001). 중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정희, 유영주(1999). 주부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관계 변인: 청소년 자녀가 있는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91.
- 박주연, 김경신(2012).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23-46.
- 박형원(2015). 기혼 성인의 원가족경험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 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63-264.
- 박혜주(2016). 대졸 취업 준비생의 가족건강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백은주, 조규판(2017).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7(17), 449-469.
- 서은숙(2017).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 서인균, 이연실(201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우울 및 절망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2(1), 117-147
- 서정희(2012).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자아 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서정희(2017).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 서창원, 민윤기(2014). (생활 속의) 심리학. 서울:시그마프레스.
- 손슬기(2014).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관계에서 삶의 의미,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인숙, 홍달아기, 박현성(2013).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4), 579-598.
- 신기철(2006). 가정환경의 건강성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성숙과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 어은주, 유명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 오은지(2016). 기혼중년기 남성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및 직무만족이 의미있는 삶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원상숙(2014).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학교부적응: 자아정체감,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위덕대학교.
- 위종휘(2012).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처 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관계분석.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계숙(2004).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 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9(2), 25-42.
- 유계숙, 신동우(2013). 대학생의 학업. 취업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 스트레스로

- 인한 소진 및 취업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4(6), 3849-3869.
- 윤가현 등 공역(2013).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윤초롱, 이자명(2018). 취업준비생의 취업준비 경험 및 심리적 지원 요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8(1), 817-847.
- 안지현(2020).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성취목표지향성의 중다매개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이경은(2003). 가족자원봉사경험과 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63-87.
- 이미라(2014).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및 취업준비 스트레스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이미숙(2011).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척도 개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선미(2014). 대학생의 자아분화수준, 가족건강성이 스트레스 인지 수준 및 대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239-260.
- 이선미, 김경신(2012). 기혼남녀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3), 3-22.
- 이순희, 차은정(2018). 대학생의 신체상, 진로 정체감, 가족건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3), 127-134.
- 이영호,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1), 98-113.
- 이유미(2019). 주관적 스트레스 대처에 따른 스트레스, 공감, 의사소통능력 차이. 국제문화기술진흥원, 5(1), 147-152.
- 이지민(2010).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대학생 우울 간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1(3), 1271-1287.

- 이진숙, 최원석(2011). 이혼한 한부모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관한 성별 비교 분석. 여성학연구, 21(3), 141-171.
- 이효진(2017).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현미(2013).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학교적응 간의 관계분석.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 임주영(2013). 가족건강성 및 자아분화가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장재운, 김은정, 신희천(2004). 청년 실업에 대한 패널 조사 연구: 대졸 미취업자들의 구직 행태 및 정신건강.
- 장효임(2009).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학생생활 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전귀연(199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전찬열(2013),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20(1), 1-14.
- 전혜정, 민성혜, 이민영, 최혜영(2009). 결혼이주여성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가족복지학, 14(2), 5-27.
- 조혜정(2013).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우울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최미혜(2017).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9, 347-375.
- 최정혜(2015).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 연구. 중등교육연구, 27, 1-20.
- 황동섭(2013).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스트레스와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위덕대학교 대학원.

- 황명주, 장용언(2017).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1), 113-136.
- 황성원(1998).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한영숙(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구. 한남대학교.
- 현은민(2017).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3), 165-174.
- 홍예진(2015).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 생각 경험이 있는 취업 준비 대학생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현승권(2016). 항공운항과 여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신체증상 및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4(4), 395-404.

2. 해외문헌

- Angst, J., Angst, F., & Stassen, H. H.(1999). Suicide risk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Supplement*, 60(2), 57-62.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Beck, A. T.(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 Beck, A. T. (1974).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A cognitive model. In R. J. Friedman & M. M. Katz (Eds.),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John Wiley & Sons.

- Blatt, S. J., D’Afflitti, J. P., & Quinlan, D. M.(1976). Experiences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383-389.
- Blatt, S. J., Shahar, G., & Zuroff, D. C.(2001). Anaclitic (sociotropic) and introjective (autonomous) dimensions. *Psychotherapy*, 38(4), 449-454.
- Burgess, E. W.(1950). Predictive methods and family stabilit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272(1), 47- 52.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reud, S.(1957). Thoughts for the times on war and death. In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14, (1914-1916): On the history of the psycho-analytic movement, papers on metapsychology and other works, 273-300. London: Hogarth Press.
- Ginzberg, E., Ginzberg, S. W., Axelrad, S., & Herman, J.(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ill, J. P.(1980), "The Family. In M. Johnson(Ed.). *Toward adolescence. The middle school years. The Seventy-nin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lmes, T. H. Rahe, R. 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2), 213-218.
- J. Swanson, K. Daniels, D. M. Tokar(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 Career-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 Kovacs, M.(1985).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Psychopharmacology Bulletin*, 21, 995-998.
- Lazarus, R. S.,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Olsen, D., & DeFrain, J.(1994). *Marriage and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Mountain View.
- Olson, D. H., & DeFrain, J. (2003). *Marriages and families:~ Intimacy, strengths. and diversity*.
- Otto, H. A.(1962). What is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77-80.
- Rehm, L. P.(1977). A self-control of depression. *Behavior Therapy*, 8, 185-190.
- Selye, H.(1936). A syndrome produced by diverse nocuous agents. *Nature*, 138(3479), 32.
- Stinnett, N., & Sauer, K. H. (1977).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stro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 11(4), 3-11.
- Stinnett, N., & DeFrain, J. D. (1986). *Secrets of strong families*. Berkley Publishing Group. Boston: Little Brown.
-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pp 197-261. San Francisco, CA, US: Jossey-Bass.
- Walsh, F.(1982). *Normal family processes*. New York: Guilford Press
- Walsh, F.(1996). The concept of family resilience: Crisis and challenge. *Family process*, 35(3), 261-281.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본 조사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취업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성이 대학생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자료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통계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해 주시는 설문지는 모두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오니, 설문지에 있는 모든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한 문제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술·가정교육 전공

지도교수 박 종 철

석사과정 송 수 호

I.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표 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가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은?
① 2/3년제(전문대학) ② 4년제 이상(대학교)

3. 귀하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정규) ⑤ 4학년(수료·유예)

4. 귀하의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는?
① 서울권 ② 경기권 ③ 인천권 ④ 그 외 지역

5. 귀하의 전공계열은?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계열 ③ 예·체능 ④ 기타

6. 귀하의 전공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7. 귀하의 대학교 학업성적은?
① 상 ② 중 ③ 하

8. 귀하의 휴학 경험은?
① 없음 ② 있음 (군휴학 제외)

9. 귀하가 계획하고 있는 진로 방향은?
① 취업 ② 진학 및 기타

10. 귀하의 학교만족도는?
① 상 ② 중 ③ 하

11. 귀하의 현재 취업준비 정도는?
① 상 ② 중 ③ 하

12. 귀하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① 상 ② 중 ③ 하

II. 취업스트레스 척도

다음은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문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이 생각할 때 현재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과공부보다 취업 공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2	나는 현재 하고 있는 학과 공부는 취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3	나는 취업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이다.					
4	나의 전공학과는 취업수요가 적은 학과여서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5	나는 취업공부로 학점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6	내가 흥미와 적성을 가졌지만 취업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7	나는 나름대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 잘되지 않은 것 같다.					
8	나는 현재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따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9	내가 장차 종사하고 싶은 직업이 있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성취가 어려울 것 같다.					
10	현재 나의 전공과 내가 장차 원하는 직업은 많은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11	나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만 취업 걱정 때문에 집중이 잘 안된다.					
12	나는 요즘 취업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된다.					
13	취직자리를 놓칠까봐 많은 시간을 취업정보센터나 신문잡지의 구직란을 본다.					
14	내가 만약 취업이 된다 해도 이 이후에 격게될 어려움들이 미리 걱정된다.					
15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취업을 해야 하지만, 자꾸 자신감이 없어진다.					
16	나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다.					
17	나는 졸업 후의 취업에 대한 압박감으로 대학생활의 낭만을 누리지 못한다.					
18	나는 요즘 친구나 선후배를 만나면 취업에 대한 걱정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9	나는 졸업 후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지금 너무 불안하다.					
20	요즘 꿈속에서도 취업 걱정을 한다.					
21	나의 실력에 대해 실망이 되고 모두 나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이 든다.					
22	나는 흥미와 노력이 다양하지만 원하는 직업을 택하기가 어렵다.					
23	나는 졸업 후 취업을 해야 하지만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다.					
24	나는 키가 작아서 취업에 불리할 것 같다.					

25	나는 좋지 못한 인상 때문에 취업에 불리할것 같다.					
26	직업에 대한 나의 목표가 너무 높아서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					
27	나는 지방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조건에서 불리할 것 같다.					
28	나의 지도교수님이 나의 취업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 섭섭하다.					
29	나는 졸업 후 취업해야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담스럽다.					
30	지금으로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취직할 곳이 없어 착잡한 심정이다.					
31	지금 현실은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취업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					
32	요즘 매스컴에서 접하게 되는 취업난이 나 자신에게도 절실하게 다가온다.					
33	나는 졸업 후 다른 것을 하고 싶지만 집안에서는 취업을 요구한다.					
34	나의 졸업 후 취업문제에 대하여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					
35	가족들이 실망할까봐 취업을 해야 하지만 어렵다.					
36	나의 경제사정으로 졸업 후 취업해야 하지만 몹시 어렵다.					
37	나는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어 취업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38	나는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지만 집안 사정상 돈을 벌어야 한다.					
39	나의 대학 공부 때문에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내가 취업하여 해결해야 한다.					
40	부모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직업을 권유하신다.					

Ⅲ. 가족 건강성 척도

다음은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이 생각할 때 현재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2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하는 일을 한다.					
3	문제를 해결할 때, 가족원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이 되도록 노력한다.					
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다.					
5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원에게 더 친근하다.					
6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					
7	온 가족이 함께 할 일을 결정하기는 매우 쉽다.					

8	우리 가족은 서로 믿으며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 놓고 산다.					
9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10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11	우리 가족은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다.					
12	우리 가족의 가치관과 규칙은 명확하다.					
13	자기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가족에게 말할 수 있다.					
14	우리 가족은 서로를 감싸준다.					
15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 모두가 책임을 동등하게 진다.					
16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준다.					
17	우리 가족은 서로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					
18	우리 가족은 가정에 충실하다.					
19	우리는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20	결정할 일이 있을 때에는 가족 모두가 의견을 제시한다.					
21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한다.					
22	우리 가족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일치한다.					
23	우리 가족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직접 말한다.					
24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보인다.					
25	우리 가족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일치 한다.					
26	우리는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27	힘들어하는 가족원이 있을 때는 다른 가족도 그 이유를 알고 있다.					
28	우리 가족 간의 의견 차이는 극복하기가 어렵다.					
29	우리 가족만의 전통이 있다.					
30	우리 가족은 서로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31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진실하다.					
32	우리 가족은 관심사와 취미와 같다.					
33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애정을 표현한다.					
34	우리는 가족의 규칙이나 가치관을 함께 만든다.					

IV. 우울 척도

다음은 우울감에 대한 문항입니다. 잘 읽고 자신이 생각할 때 현재 가장 가깝다고 생각 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호	문항	
1	① 나는 우울하거나 슬프지 않다.	
	② 나는 가끔 우울하고 슬프다.	
	③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④ 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슬프고 불행하다.	
2	① 나는 앞날에 대해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② 나는 앞날에 대해 용기가 나지 않는다.	
	③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④ 나는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①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③ 나는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 투성인 것 같다.	
	④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①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②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③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④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5	①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가끔 죄책감을 느낀다.	
	③ 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	
	④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6	①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③ 나는 앞으로 벌을 받을 것 같다.	
	④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①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②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③ 나는 나 자신이 싫다.	
	④ 나는 나 자신을 증오했다.	
8	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②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③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④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모두 내 탓이다.	

9	① 나는 자살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②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을 것이다.	
	③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④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① 나는 전보다 자주 더 울지는 않는다.	
	② 나는 요즘 전보다 더 자주 운다.	
	③ 나는 요즘 항상 운다.	
	④ 나는 너무 울어서 이제는 울고 싶어도 울 기력조차 없다.	
11	① 나는 요즘 전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②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③ 나는 요즘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④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인데도 이제는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① 나는 전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②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③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④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13	① 나는 전처럼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② 나는 전에 비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룬다.	
	③ 나는 전보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④ 나는 더 이상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14	①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②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매력이 없어 보일까봐 걱정된다.	
	③ 이젠 남에게 매력을 주지 못할 만큼 내 모습이 변했다.	
	④ 나는 내가 못 생겼다고 확신한다.	
15	①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②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힘이 든다.	
	③ 무슨 일이든 하려면 시작하기가 무척 힘이 든다.	
	④ 나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16	① 나는 전처럼 잠을 잘 잔다.	
	② 나는 전에 만큼 잠을 잘 자지는 못한다.	
	③ 나는 전보다 한 두 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④ 나는 전보다 몇 시간 일찍 잠을 깨며, 한 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17	① 나는 전보다 더 피곤을 느끼지는 않는다.	
	②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을 느낀다.	
	③ 나는 거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피곤을 느낀다.	
	④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① 나의 식욕은 평소와 비슷하다.	
	②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③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④ 요즈음 전혀 식욕이 없다.	
19	① 나는 요즈음 몸무게가 별로 줄지 않았다.	
	②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조금 줄었다.	
	③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④ 나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어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다.	
	● 나는 현재 음식 조절로 몸무게를 줄이고 있는 중이다. (예 / 아니오)	
20	①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신경 쓰지는 않는다.	
	② 나는 두통, 소화불량, 변비 등으로 건강에 신경이 쓰인다.	
	③ 나는 건강이 염려되어 다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④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너무 심하다.	
21	① 나는 요즘도 성(性)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다.	
	② 나는 전보다 성(性)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③ 나는 전보다 성(性)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다.	
	④ 나는 성(性)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어 버렸다.	

* 장시간 설문에 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